“어쩔 수 없어…” 학교 강행에 학부모들 거부 속출

다음주 뱃길 수학여행 앞둔 광주·전남 학교 전전긍긍

취소하고 싶지만 위약금 부담…“교육당국 나서야”

목포영화중·광양여고 등 전남 5~6곳 전격 취소

목포영화중·광양여고가 제주 뱃길 수학여행을 전격 취소했다. 다음 주에 제주 수학여행을 계획했던 광양마동초·순천연향초도 취소 또는 무기 연기에 동참했다.

전남과는 달리 광주지역 학교들은 수천만원에 달하는 위약금 때문에 주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학부모들은 “1인 시위라도 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7일 광주시·전남도 교육청에 따르면 다음주 제주 뱃길로 수학여행을 떠나는 학교는 광주 10개교, 전남 12개교 등 22개교다. 이미 제주에서 수학여행을 진행 중인 학교도 6개교에 달한다. 이들 학교는 2000만원에 달하는 위약금 때문에 수학여행을 취소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속내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전면 보류’ 결단을 내려주기만을 바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남지역 학교들은 뱃길 제주 여행을 잇따라 취소하고 있다. 목포영화중·광양여고 등 5~6개 학교가 이날 수학여행을 취소 또는 무기연기 했다. 또 3~4개 학교도 학부모 의견수렴 등을 거쳐 취소 절차를 밟고 있다.

목포영화중 박재석 교장은 “오늘 긴급하게 운영위원회와 학부모총회를 열어 제주 뱃길 수학여행을 무기 연기했다”고 밝혔다. 이 학교는 2학년 270명을 데리고 21일 목포항에서 제주도로 뱃길 수학여행을 계획했었다.

박 교장은 “예약된 일정 탓에 고심도 했지만 학부모들이 강하게 반대한데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가봐야 수련활동에는 한계가 있어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박영식 광양여고 교장도 “학부모들에게 의견을 물었더니 ‘당연히 안 가는 거 아니냐’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면서 “이날 오후 긴급 운영위를 개최해 무기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광주지역 학교들은 여전히 위약금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A고 교장은 “2000만원이나 되는 위약금을 감당할 수 없어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했다”며 “대신 학부모·운영위·학생대표 등과 함께 목포항을 방문해 안전점검을 직접하고, 해양경찰에도 동승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학교 측의 망설임에 대해 학부모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학부모 조모씨는 “어떻게 죽음의 바다로 내 아이를 보낼 수 있겠냐”며 “학교 측이 강행 결정을 내리더라도 보내지 않겠다”고 말했다. 학부모 박모씨는 “1인 시위라도 하겠다”고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온라인 상에서는 ‘대규모 수학여행을 폐지해야 한다’는 학부모들의 청원도 잇따르고 있다.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는 1만명이 넘는 네티즌들이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네티즌 ‘피낭코’는 “예전엔 단체여행을 통해 경비도 절약하고 협동심도 배양하는 등 교육적 효과가 있었지만 요즘은 사고 위험도 높고 여행 이후 왕따·폭력 등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정부는 단체 수학여행을 없애고, 다른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경기도 지역 학부모와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7일 밤 안산 단원고에서 여객선 침몰사고로 배안에 갇힌 학생들의 무사귀환을 기원하는 촛불문화제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선박 안전지침 광주 없고 전남 시늉만

한해 광주에서만 50곳이 넘는 학교들이 제주와 해외로 수학여행을 가고 있지만, 광주시교육청의 선박·항공에 대한 안전지침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월 119쪽에 달하는 ‘수학여행·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을 일선 학교에 배포하고,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하지만 이 매뉴얼의 교통안전 항목에는 항공이나 선박에 관해 한 줄도 언급돼 있지 않다. 수상활동(물놀이) 안전 점검 체크리스트와 물에 빠진 경우 응급처치만 있을 뿐이다.

단체 차량(버스) 이용에 대해 5개 항목 32개 문항에 대해 점검하도록 한 것과 대조적이다.

반면, 전남도교육청 매뉴얼에는 ‘선박 이용시 안전교육’이 간단하게 언급됐다.

32쪽 분량의 ‘현장체험학습 운영 방향’이라는 매뉴얼에는 비상구조선 이용방법, 구명동의 착용법, 비상탈출방법 등을 사전에 지도하도록 했다. 또 정원 초과 승선을 절대로 하지 말도록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의원은 “비행기나 여객선 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규정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전국 애도·구호 물결

“무사히 가족 품으로…” 곳곳 기원

지자체 축제·관광성 행사 취소

전 국민이 슬픔에 잠겼다. ‘세월호’ 침몰 사고 희생자를 애도하는 마음을 담은 구호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으며, 정부의 주요 행사는 물론 전국 자치단체들의 축제·관광성 봄철 행사도 대부분 취소·연기됐다. 연예계와 스포츠계 등도 주요 행사 일정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등 애도 행렬에 동참하고 있다.

◇**전 국민 애도 물결**=미국 프로야구 로스앤젤레스 다저스 투수 류현진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모두 무사히 가족 품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모두 힘내세요”라는 애도의 글을 남겼다.

팝페라 테너 임형주는 “안내 방송으로 ‘움직이지 말라’고 한 건 도대체 어떠한 기준의 구조 계획을 세우고 한 것인가. 정말 이해가 안 간다. 제발 무사하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한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온·오프라인에선 이날 하루종일 실종자의 생환을 바라는 마음이 담긴 글과 말들이 이어졌다.

◇**진도로 향하는 구호손길**=광주시는 이날 생수와 컵라면, 빵 등 1억원 상당의 물품 지원에 나섰다. 적십자, 농협, 롯데칠성 등 30여 기관·단체도 모포, 생수, 컵라면 등 구호물품을 전달했다. 국민은행 호남지역본부와 진도군 축구협회, 농어촌공사 진도지사 농협 진도군지부 등 30개 기관·단체도 구호활동에 힘을 보탰다.

특히 현장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적십자, 강진읍 자원봉사자, 진도군 의용 소방대, 강진 여성소방대 등 500여명은 식사 제공 등 봉사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안산 사랑운동본부와 평택SM(스페셜 멤버십) 클럽도 2000인분의 급식봉사활동에 나선 상태다.

대한적십자사도 임시보호소 등에 직원과 봉사원 100여 명을 급파해 구호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포스코 광양제철소도 5t 트럭 1대 분량의 구호품을 전달했다. 이외에도 전국의 수많은 자치단체와 기관, 민간단체 등에서도 구호물품이 잇따르고 있다.

◇**축제·관광성 행사도 취소**=17일 전후로 예정된 중앙정부의 주요 회의나 행사들이 취소되거나 무기한 연기됐다. 또 정부가 주관하는 관광주관 행사와 대국민 홍보도 중단됐으며, 지역축제 행사도 줄줄이 연기·취소되고 있다. 전남에서는 18일로 예정됐던 신안군 임자도 튤립축제 개막식이 취소된데 이어 19일로 순천만정원 개막식도 중단됐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도 당분간 인파가 모이는 행사는 열지 않기로 했다. 스포츠계도 예정됐던 행사를 취소하고 응원을 자제하기로 하는 등 사회적인 애도 분위기에 동참했다. 전남드래곤즈는 19일 열리는 전북 현대와의 홈경기를 응원 없는 경기로 치르기로 했다.

연예계도 예정된 일정을 잇달아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있다. 가요계는 음원 발매 및 프로모션 일정을 연기하기로 결의했으며, 방송계와 영화계도 제작발표회, 언론시사회 등의 행사를 취소 또는 미루기로 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